

研究發表

李退溪의 詩歌文學

— 주로 時調와 歌辭를 中心으로 —

慶北大 副教授 徐 元 燮

I. 序 言

退溪는 朝鮮朝 五百年에 있어 첫째가는 巨儒이다.

그는 朱子學을 集大成하여 他人의 追從을 不許하기에 東方夫子라는 稱을 듣고 있다.

오늘날 大部分의 研究者가 退溪를 「哲學者型的 道學者」로 規定하고 그에 關한 研究 또한 哲學的인 面에서만 置重하고 있는 것이 昨今年의 退溪學 研究의 實情이다.

退溪는 「詩人·文學者型的 道學者」라고도 할 수 있다. 그의 珠玉같은 漢詩와 韓國文字(한글)로 創作된 時調와 歌辭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하기에 哲學的 思想的인 學問의 研究에만 置重할 것이 아니라 詩歌文學의 研究도 並行되어야만 退溪學의 眞面目을 살필 수 있다고 본다.

當時 兩班社會에서는 漢字로 쓴 글을 眞書라 하고 韓國文字로 쓴 글을 諺文이라 하여 賤示하였기 때문에 自然 漢詩보다는 韓國詩歌를 가볍게 보는 傾向이 있었다.

朝鮮朝 中葉을 代表하는 漢文四大家의 一人인 象村 申欽은 韓國文字로 30首의 좋은 時調를 創作한 바 있으나 時調의 優秀性和 特異性을 發見하지 못하고 但只 韓國詩歌는 漢詩를 짓는 餘技로서 創作한다고 하였다.

그의 放翁詩餘序에 보면 「合心한 바가 있으면 詩章을 짓고 그래도 餘繼가 있으면 方言으로 읊어 諺文으로 記錄한다」고 하였다.

이는 韓國詩歌에 대한 象村의 見解만이 아니고 當時 儒者들의 共通的인 見解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退溪는 當時의 一般 儒學者들의 見解와는 달리 韓國詩歌에도 깊은 理解와 一家見을 가지고 있었으니, 陶山十二曲跋과 漁父歌跋에서 言及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陶山十二曲跋에서 「性情에 느끼는 바가 있으면 每樣 詩로 불렀다. 그러나 今詩는 古詩와는 달라 詠頌할 수는 있으나 歌唱하지는 못한다. 꼭 歌唱코자 하면 韓國語로써 創作해야 한다.

그것은 韓國風俗과 音節이 中國과 다르기 때문이다.」

有凡感於情性者 每發於詩 然今之詩 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 必綴以俚俗之語 蓋國俗音節 所不得不然也⁽¹⁾

고 하여 漢詩는 詠頌할 수는 있으나 歌唱할 수는 없기 때문에 萬若 歌唱코자 하면 韓國文字로 創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實로 이는 唱과 韓國文字로 創作할 必要性을 力說한 것이라 하겠다.

하기에 退溪는 時調로는 陶山十二曲을 지었고, 歌辭로는 琴譜歌 勸義指路辭 相杵歌 樂貧歌 牧童歌 等を 지었다.

本稿에서는 陶山十二曲과 琴譜歌 및 勸義指路辭만을 論究키로 하고 또 이들 作品에 退溪의 思想이 어떻게 反映되고 있는가를 考察코자 한다.

II. 時 調

1. 陶山十二曲⁽²⁾

(1) 創作年代

陶山十二曲跋에 依하면 陶山十二曲의 創作動機 創作年代 創作地 作

(1) 退溪先生文集 卷之四十三 二十三張.

(2) 徐元燮 退溪의 陶山十二曲 研究 退溪學研究 2號 1974. 12. 30.

者 作者의 詩歌觀 等に 대해서 昭詳히 言及되어 있다.

그런데 跋에 明記된 創作年代에 대해서 異論을 提起코자 한다.

跋에 「嘉靖四十四年 歲乙丑暮春既望 山老書」⁽³⁾라고 記錄되어 있는데, 이는 朝鮮朝 明宗 20年乙丑(1565 A. D.) 3月 16日로 退溪 65歲 때에 該當된다.

跋에 보면

欲使兒輩 朝夕習而歌之 憑几而聽之 亦令兒輩 自歌而自舞蹈之 庶幾可以 蕩篠鄙吝 感發融通 而歌者與聽者 不能無交有益焉 · 姑寫一件 藏之篋笥 時取玩以自省 又以待他日 覽者之去取云爾⁽⁴⁾

라는 記錄이 있는데, 退溪는 陶山十二曲을 創作하여 「兒輩들르 하여금 朝夕으로 익히 부르게하고 또 이를 筆寫하여 상자에 감추어 두었다가 時時로 取하여 이를 玩詠하여 自省의 具로 삼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嘉靖四十四年은 跋을 쓴 年代이지 決코 陶山十二曲을 創作한 年代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고 한다면 陶山十二曲의 創作年代는 跋을 쓴 嘉靖 44年 3月 16日 以前이 分明하다.

後六曲 其一에 「天雲臺 도라드러 玩樂齋 蕭酒훈디」라고 하여 天雲臺와 玩樂齋가 보이는데, 年譜에 依하던 天雲臺와 玩樂齋를 지은 것은 退溪 60歲 때인 明宗 15年 11月의 일이다.

하기에 陶山十二曲은 退溪 60歲 때인 明宗 15年 11月에서 跋을 쓴 明宗 20年 3月 16日 間에 創作한 것이 分明하다.

그는 60歲 때 陶山書堂을 構築하고는 그 翌年인 61歲 때 書堂을 構築한 仔細한 經緯와 그곳의 秀麗한 形勢를 十八絶 二十六絶 四絶 詩로 읊었으나 漢詩는 詠頌 할 수는 있으나 歌唱하기에는 不滿底意가 있어 十八絶 等詩를 지은 然後에 韓國文字로 歌唱할 수 있는 陶山十二曲을 創作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陶山十二曲의 創作年代는 退溪의 61歲 때인 明宗

(3) 退溪先生文集 卷之四十三 二十四張.

(4) 退溪先生文集 卷之四十三 二十四張.

16年(1561 A.D.) 이라고 할 수 있다.

(2) 內 容(主題)

陶山十二曲의 主題는 크게 言志와 言學으로 나눌 수 있다. 卽 前六曲은 때를 만나고 事物에 接하여 일어나는 感興을 읊었고, 後六曲은 學問修德에 臨하는 心志를 읊었는데, 12首의 時調에 담겨 있는 主題를 다시 細分하면 다음과 같다.

- 1) 江湖閑情 前六曲 中 1, 2, 5, 6 曲.
- 2) 敎誨警戒 前六曲 中 3曲.
- 3) 戀主忠君 前六曲 中 4曲.
- 4) 學問修德 後六曲 全部.

첫째, 江湖閑情의 時調를 보면 退溪는 哲理만을 窮究하는 一般 道學者와는 달리 道를 體得 實踐하는데 힘쓰는 한편 自然을 벗하고 사랑하는 生活로 一貫하였다. 退溪가 自然에 沒入한 生活를 어느 程度 했는가 하는 것을 陶山記에 仔細히 記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退溪는 自然을 玩賞하는 境地를 넘어서 自然에 沒入 沈潛하는 狀態에까지 到達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自然에 沒入한 그의 日常生活은 바로 江湖閑情의 時調들로 表現되어 있다.

둘째로, 敎誨警戒의 時調를 보면 退溪는 政治家로서 보다 學者로서 더 有名하고 또 그를 東方夫子라고 일컫는 所以然도 그의 學問成就가 他人의 追從을 不許하기 때문이다. 그는 官職에서 물러나 後進들을 敎誨하는 한편 人性的 敎화와 禮俗을 고루는데 힘썼으니 그의 이러한 生活態도와 思想은 바로 敎誨警戒의 時調로 나타나고 있다.

세째로, 戀主忠君의 時調를 보면 退溪集에는 美人이란 用語를 使用한 戀主詩는 別로 없고 다만 恩君 聖主洪恩 恩典 君恩 聖恩 國恩 恩波 等の 用語를 使用한 詩가 있을 뿐이다. 退溪의 그 많은 漢詩中 美人詩는 但只 二篇 뿐인데, 其中 一篇은 梅花를 美人이란 別名으로 읊었고, 나머지 一篇만이 君主를 美人이라 하여 읊고 있다.

하기에 退溪가 美人이란 用語로써 戀主詩를 지은 것은 本 時調와 더 붙어 오직 二篇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美人詩가 오직 二篇 뿐이라고 해서 그의 君主에 대한 忠誠心이 稀薄하다고는 볼 수 없으니, 이 一首의 時調에서도 退溪의 戀主忠君之情과 戀君思想이 잘 나타나 있다.

네째로, 學問修德의 時調를 보면 退溪는 50歲 時 寒棲庵을 지어¹ 堂名을 「靜習」이라 하고는 그 속에 파문혀 讀書하는 한편 모여드는 學徒에게 講學을 하는 나날을 보내었다.

이와같이 學問研鑽과 後進講學에 沒頭한 退溪로서 學問修德을 主題로 한 時調가 많다는 것은 當然之事라 하겠고, 또 그의 學問研鑽의 態도와 思想은 바로 學問修德의 時調들에 잘 나타나 있다.

이 學問修德의 時調는 그 內容이 高雅鎮重하이 東方夫子라는 稱으로 推仰받는 退溪의 人品이 잘 풍기고 있는 作品이다.

Ⅲ. 歌 辭

1. 琴譜歌⁽⁵⁾

退溪의 音樂(歌樂)觀은 男女相悅의 變聲을 싫어하고 道德을 存養하는 舜琴과 같은 正聲만을 讚揚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音樂觀은 그가 쓴 陶山十二曲跋과 龔岩 李賢輔의 漁父歌跋 그리고 本 歌辭인 琴譜歌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本 歌辭는 聖代의 音樂이던 正聲인 舜琴을 讚揚하고, 거문고(玄琴)의 制度和 聲律을 道德的인 見地에서 附會 說明하고 차츰 世上이 亂世가 됨에 따라 正聲이 물러가고 男女相悅의 變聲이 盛行하는 것을 慨嘆한 것이다.

이제 本歌를 그 文脈에 따라 5段으로 分段하여 內容을 살펴 보기로 한다.

第一段

玉樓紗窓 花柳中の 白馬金鞭 少年들이

……〈中 略〉……

窮天 地理을 大綱이나 일으킬라

(5) 徐元燮 退溪의 琴譜歌 研究 退溪學研究 3號 1975.12.31.

第 1段에서는 輕薄한 少年들이 花柳場에서 妓女와 遊樂하며 玄琴의 音律과 體法도 모르면서 오직 變聲만을 좋아하여 蕩逸하는 것을 慨嘆하면서 正聲의 音律과 體法을 大綱이나마 가르쳐 주겠다고 하고 있다.

第二段

太平代 聖帝王이 堯舜까지 조잇느냐

… <中 略>……

上中下體 한法이 天地人 三才로다

第 2段에서는 中國 歷代를 通觀해 볼 때 太平聖代의 帝王으로는 堯舜 뿐이라 하고, 또 舜帝는 蒼梧山 碧溪邊의 石上 梧桐을 베어 五絃琴을 만드니 그 舜琴은 上中下體 한 法이 天地人 三才를 模倣했다고 하고 있다.

第三段

中虛 外實하여 陰陽을 配合하니

.. <中 略>……

九萬里 雲霄의 기력의 발이로다

第 3段에서는 玄琴의 模樣을 말하고 있다. 玄琴은 中虛 外實하여 背部는 마치 天圓과 같이 둥글고, 腹部는 마치 地方과 같이 모났는데, 靑絲로 된 五絃 中 三絃은 16杼 上에 있고 他 二絃은 雁足으로 버티어 놓았다고 말하고 있다.

第四段

蕭湘 斑竹枝로 줄줄이 끝나니

· <中 略>……

少虛子 尋訪曲은 太平의 詩興이라

第 4段에서는 玄琴의 聲律을 말하고 있다. 玄琴을 彈奏하면 絃마다 各各 獨特한 소리가 나는데, 大絃은 마치 老龍의 울음소리와 같고, 小絃은 仙鶴의 소리와 같다. 또 五音을 具體的으로 說明하면 第 1音은 春聲이라 東風 百花節의 杜鵑聲과 같고, 第 2音은 夏聲이라 南山 松栢枝의 孔雀聲과 같고, 第 3音은 秋聲이라 西風 白帝城의 孤雁聲과

같고, 第 4音은 冬聲이라 北水 長江의 灘聲과 같고, 第 5音은 雉聲이라 春秋 戰國時의 地動聲과 같은데, 이는 모두 正聲이기에 이와같은 소리가 난다고 하고서 太平聖世의 音樂(正聲 卽 治世之音樂)을 玉指로 彈奏할 때 마다 杼마다 各各 다른 清雅한 소리가 나고 特히 步虛子 琴訪曲을 타던 太平의 詩興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다.

第五段

南蔭殿 月明夜의 손쪼빚겨 안으시고

…<中 略>…

엇지타 大型遺譜을 誤傳할줄 잇슬는가

第 5段에서는 琴은 治世의 音樂(正聲)이었는데 今世에 와서는 女妓의 音樂으로 變하여 靑樓酒肆에서 오직 輕薄子들의 男女相悅의 聲聲으로만 盛傳함을 보고 元來는 治世之音인 大舜의 遺譜를 誤傳하는 것을 慨嘆하고 있다.

2. 勸義指路辭⁽⁶⁾

退溪는 人間이 仁義와 五倫을 行하지 않고 暗黑世界만을 좋아하여 날로 混濁해지는 世俗을 근심하여 後學에게 敎訓하기 위하여 本 歌辭를 創作한 것인데, 이의 創作年代는 알 수 없고 但只 聖學十圖(筆寫本) 末尾에 指路辭 後叙와 함께 收錄되어 있어 그 傳해진 經路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제 內容을 10段으로 分段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第一段

이보소 사람들아 이니말 드러보소

……<中 略>……

이길을 일치말고 저집으로 니고시라

第 1段에서는 堯舜 때 담고 孔子 때 一層 더 밝혀진 仁義와 五倫이란 大路를 人間이 찾지 않고 但只 斜路와 暗黑 世界만을 즐겨 찾고 있는 것을 보고 몹시 안타까와 해서 人間은 모름지기 仁義와 五倫을 담

(6) 徐元燮 退溪의 勸義指路辭 研究 退溪學研究 4號 1976. 12. 31.

아 實踐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第二段

그러도 모로거든 조흔말 들어보소

· · <中 略> · · ·

남업시 혼자갈계 더욱조심 흥여스라

第 2段에서는 人間은 大路와 正道를 行할 것을 1段에서 보다 더 具體的으로 言及하고 있다.

太初에 天地가 肇判할 때는 五行을 갖추었고 人間이 날 때는 五倫이 갖추었기에 天地 即 五行이고 人間 即 五倫이라고 할 수 있다.

하기에 五倫을 지키는 이는 참된 人間이라고 할 수 있지만 五倫을 外面하는 人間은 禽獸와 다름없다.

上代 中國의 聖君인 堯舜과 大聖人 孔孟도 모두 五倫을 익혀 實踐한 사람이니 人間은 모름지기 中途而廢하지 말고 堯舜과 孔孟을 效則하여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五倫을 修行 精進하라고 하고 있다.

第三段

니몸이 어질일은 저다하고 마지말고

· <中 略> · · ·

너희도 이를보아 길바로 저바스라

第 3段에서는 마음 修養을 強調하고 있다. 곧 人倫을 行함에 있어 뉘보다도 마음은 닦아 바로 하는 것이 第一이라고 하고 있다.

退溪는 精一하고 中을 잡는 것이(執中) 學問의 大法이라고 보았기에 마음을 精一하고 中을 잡아라고 하였다.

흔히들 家畜을 잃고는 찾을 줄 알아도 마음을 잃고는 찾을 줄 모르는 것을 慨嘆하고 있다.

聖王인 殷湯 周武王과 暴君인 夏桀王과 殷紂王은 聖君과 暴君이라고 해서 한편은 尊崇받고 한편은 指彈받고 있지만 그 差異點은 義를 어느 程度 尊重하느냐에서 비롯하였고, 또 孔孟의 學問은 儒學에 있어 大宗이 되고 楊朱와 墨子の 學說은 모두 儒敎에서 異端이라 排斥 指彈받고 있는 것도 마음을 精一하고 執中하느냐의 與否에 있다.

人間은 누구나 孔孟의 言語와 法을 行하면 孔孟이 될 수 있지만 盜跖의 衣服을 입고 盜跖의 말을 하면 盜跖이 되고 만다. 人間은 모름지기 이 點을 銘心해서 孔孟의 學問을 배우고 實踐하여 孔孟과 같이 될 수 있도록 精進하라고 하고 있다.

第四段

富貴도 나날마다 이마음 소길소나

……〈中 略〉……

이마음 이러커든 돌디나 업슬소나

第 4段에서는 學問은 마음에서 求하지 않으면 昏迷해서 언지 못한 다고 하고 있다. 人間은 功利에 誘惑되지 않고 異端에 迷惑됨이 없이 오직 聖賢의 學問을 굳게 믿고 禮義 道德의 實踐에 힘써야함을 말하고 있다.

第五段

丹田으로 터를삼고 赤室로 집을삼아

… …〈中 略〉……

堂上이 올라안저 曲直을 이라리라

第 5段에서는 田地와 奴婢는 다루는 이가 많지만 仁義의 禮智는 다루는 이가 없기 때문에 人間은 누구를 莫論하고 마음을 精一하게 하여 仁義禮智를 닦기를 힘써라고 하고 있다.

退溪의 心統性情圖說에 보면 「마음이 性을 統率한 까닭에 仁義禮智가 性이 되고 또 仁義之心이라고 한다. 한편 마음이 情을 統率한 까닭에 惻隱 羞惡 辭讓 是非가 情이 되고 또 惻隱之心이니 羞惡之心이니 辭讓之心이니 是非之心이라고도 한다. 마음이 性을 統率치 못하면 未發之中을 極致로 할 수 없어서 性이 뚫어지기 쉽고, 마음이 情을 統率치 못하면 中節之和를 極致로 할 수 없어서 情이 放蕩하기가 쉬울 것이니 學者는 이 點을 잘 認識하고서 반드시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性을 存養하고 그 情을 節制하면 마음의 道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心統性 故仁義禮智爲性 而又有言仁義之心者 心統情 故惻隱羞惡辭讓是

非爲情 而又有言惻隱之心 羞惡辭讓是非之心者 心不統性 則無以致其未發之中而性易鑿 心不統情 則無以致其中節之和而情易蕩 學者如此 必先正其心 以養其性而約其情 則學之爲道得矣⁽⁷⁾

하기에 本段에서도 배움의 길을 얻고자하면 마음을 바르게 하여 性을 存養하고 情을 節制하라고 하고 있다.

第六段

너 마음 물이되어 갈리길티 흘러있다

··〈中 略〉··

士君子 行身大道야 이만가져 못헝리라

第 6段에서는 마음이란 마치 流水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지 않으면 千萬갈래로 산라지고 만다고 한다.

學問을 함에도 精一執中하느냐가 큰 問題가 된다. 하기에 學問하는 마음에는 放心이란 絶對로 禁物이고, 또 衆慾에 막히고 人心에 斷絶된 心路를 瀟湘竹과 孔庭栢으로 이어 坦坦 大路를 하늘같이 닦아두고 百萬蒼生을 다 가게하는 것이 士君子의 行身大道라고 말하고 있다.

第七段

이 마음 초진후의 가으로 가지마라

·〈中 略〉··

이마음 순히엇서 일마다 찰히스라

第 7段에서는 物慾과 衆慾에서 마음을 닦은 後는 放心하지 말고 오직 精一해시 마음 심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는 精一하고 執中하는 것이 學問의 大法이기 때문이다.

옛부터 精一執中한 이를 보면 堯舜 孔孟 禹湯 文武 周敦頤 程顥 程頤 張載 朱熹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執中한 이들이기에 大聖 大賢이라 尊崇되고 있으니 사람들은 모름지기 大聖 大賢을 본받아 精一執中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第八段

百事를 생각하면 輕重이 다이시며

(7) 退溪先生文集 卷之七 心統性情圖說 二十三張.

· …… <中 略> ……

이마음 일흔후의 禽獸의 거서로다

第 8段에서는 百事에는 輕重이 있고 萬物에는 長短이 있듯이 仁義로 衡을 삼고 禮智로 錘를 삼아 一錢 一兩을 잘 辨別해서 踐하고 또 學問을 精進하면 自然 堯舜에 갈 수 있다고 하고 있다. 8段의 內容을 보면 마치 太極圖說에 있는 「오직 聖人은 中正과 仁義로써 定하고, 靜을 主로 해서 人極을 세웠다. 故로 聖人은 天地와 더불어 그 德을 습하고 日 月과 그 明을 습하고 四時와 그 秩序를 습하고 鬼神과 그 吉凶을 습하니 君子는 이를 닦아서 吉하게 된다. 故로 天의 道를 세워 陰과 陽이라 하고 地의 道를 세워 柔와 剛이라 하고 人의 道를 세워 仁과 義라고 한다」고 한 說을 敷衍하고 있는 듯하다.

聖人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立人極焉 故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合其序 鬼神合其吉凶 君子修之吉 小人悖之凶 故曰 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⁸⁾

第九段

처음의 이결둘제 베게 흥야 두건마는

· …… <中 略> ……

數仞墻 도라들어 杏壇의 울오리라

第 9段에서는 赤子의 마음은 人慾에 흐려지지 않은 良心이지만 보통 人心은 慾心에 눈을 뜬 것이다.

하기에 한번 갖은 赤心을 잘 간직해서 物慾에 눈뜨지 말고 聖學에 힘쓸 것이니 너무 달리지도 또 쉬지도 말고 조심해서 德과 義에 依持해서 精進하면 程頤 程顥 朱子 曾點을 거쳐 드디어 孔門에 到達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第十段

나도 첫길이라 仔細히 모로면서

· …… <中 略> ……

가다가 알이만나 다시무려 니저스라

(8) 退溪先生文集 卷之七 太極圖說 十~十一張.

1段이 序라 하면 第 10段은 結이라 할 수 있다.

聖賢의 學問에 뜻을 두고 精一執中하라고 하고서도 結에 와서 退溪는 謙虛함을 나타내어 自己도 初學者로 남을 가르친다는 것이 猥濫하다고 하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 물어가면서 精進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Ⅳ. 結 言

以上에서 論述한 바를 要約하여 結論을 삼고자 한다.

1. 陶山十二曲의 創作年代는 陶山十二曲跋과 時調에 나타난 天雲臺와 玩樂齋의 卜築時期 등을 살펴 본 結果 退溪의 61歲 時인 明宗 16年 (1561 A.D.)의 作이라 推斷해 보았다.

2. 陶山十二曲의 主題는 言志와 言學으로 大別할 수 있지만 細分하면 江湖閑情 教誨警戒 戀主忠君 學問修德 등으로 나눌 수 있다.

陶山十二曲 中 江湖閑情의 時調는 前六曲 中 1, 2, 5, 6曲이 該當되고, 教誨警戒의 時調는 3曲이, 戀主忠君의 時調는 4曲이, 學問修德의 時調는 後六曲 全部가 이에 該當된다.

3. 琴譜歌는 聖代의 音樂이던 正聲인 舜琴을 讚揚하고, 또 玄琴의 制度와 聲律을 道德的인 見地에서 附會說明하고 後世에 와서 亂世가 됨에 따라 正聲이 물러가고 男女相悅의 變聲이 盛行하는 것을 慨嘆한 것이라는 것과 全文을 5段으로 分段하여 그 內容을 具體적으로 살펴 보았다.

4. 勸義指路辭는 人間이 仁義와 五倫을 行하지 않고 暗黑世界만을 좋아하여 날로 混濁해지는 世俗을 근심하여 後學에게 教訓하기 위하여 創作한 것이라는 것과 全文을 10段으로 分段하여 內容을 살펴 보았다.

그 結果 이들 作品에 담겨 있는 退溪의 詩歌觀 音樂觀 등으로 볼때 그는 韓國詩歌에 대한 올바른 見解와 一家見을 가지고 있어 序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退溪는 「詩人·文學者型的 道學者」라는 規定에 遜色이 없는 人物이라고 본다.